

<만파식적>설화의 다시읽기를 통한 통합의 의미 탐색

김 종 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I. 머리말

II. 관련 자료의 재검토

1. 관련 이야기 다시읽기

2. 만파식적 피리의 모양에 대한 재검토

III. <만파식적>설화에 담긴 통합의 의미

1. 무열왕계와 가야계의 통합

2. 내물왕계와 무열왕계의 통합

IV. 남은 문제-맺음말에 대신하여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만파식적>설화의 다시읽기를 통해 이야기에 담긴 사회 통합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파식적>설화는 이야기에 담긴 신이성 때문에 후대 학자들은 그 실상을 부정하면서도, 근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기능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향유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의 호국사상과 사회 통합 의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사료로는 ‘김흠돌의 반란’ 사건을 무마하는 장치, 또는 신문왕대에 와서 무열왕계의 왕권을 강화하는 장치 정도로만 해석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삼국유사』에 만파식적을 언급한 이야기들을 다시 읽으면서 『삼국사기』의 기사와 비교하고, 논증의 대상에서 배제된 『화랑세기』의 기사를 통해 그 통합의 실상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만파식적>설화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호국의 장치보다는 국내의 변란을 진압하고 무마하는 사회 통합의 장치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신문왕과 효소왕 때 언급된 내용은 무열왕계와 가야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고, 원성왕 때 언급된 내용은 내물왕계와 무열왕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조화와 통합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리라는 악기를 설정하였는데, 만파식적은 두 계파를 상징하는 대나무 두 개를 나란히 붙여 소리를 내는 악기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만파식적을 대금의 원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대나무 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만든 쌍피리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 만파식적, 다시읽기, 사회통합의 장치, 쌍피리, 무열왕계, 가야계, 내물왕계

I. 머리말

<만파식적> 이야기는 ‘일 만 파도를 쉬게(萬波息)’ 한다는 명명에서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한 개인의 삶에서나 한 국가의 역사에서 갈등과 부침은 없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피리’라고 하니 진귀한 보배로 여겨지며, 한번쯤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이 피리에 얽힌 이야기들은 그 신이성 때문에 후대 유학자나 문인들이 그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언급¹⁾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개인들 사이나 조직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상징으로 ‘만파식적’이 활용되기도 한다. 곧 <만파식적>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위무하기 위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의 역사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료를 기반으로 고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악계에서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피리라는 악기에 주목하여 국악기의 원류를 파악하는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금(大筚)의 기원²⁾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러한 단정적인 견해가 어디에서부터 시

-
- 1) <만파식적> 이야기가 발견되는 최초의 문헌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 제 32 잡지 악조에서이고, 그 후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에 단독 항목으로 「만파식적」조가 있으며, 「원성대왕」조에 사건 기사로 언급되었고, 답사편 「백률사」조에 부레랑 구출에 대한 신이담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를 근거로 고려조 문인들의 한시나 문장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를 조선 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도 역사 연대에 맞춰 기사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신이성을 들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2) 현대의 문학이나 음악계에서는 만파식적을 대금의 원형으로 본다. ‘사단법인 신라만파식적보존회’에서도 대금연주를 위주로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단체 역시 만파식적의 모양을 대금과 유사한 악기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작되었는지는 찾지 못하였으나 <만파식적>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시 읽다보면 그 형체는 지금의 대금 모양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시야에서 볼 수 없는 실체에 대해서는 상상의 폭이 좁고, 신학문 초창기의 학자들이 선언적으로 내세운 여러 단서들을 큰 고민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더러 보인다. 만파식적을 대금의 원형으로 보는 시각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원문을 읽다보면 다른 형상이 그려지는 단서가 있어서 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파식적>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호국불교사상의 구현으로 보는 입장³⁾과 그 신이성과 서사구조에 주목하여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거나 제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입장⁴⁾,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진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상적 상황에 대해 구명하려는 입장⁵⁾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에서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찰은 기본 바탕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삼국유사』 기이편 소재 「만파식적」조 이야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모든 관련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파식적이 만들어진 경위를 신이한 서사구조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표면으로 보면 만파식적을 제작한 신문왕대의 심각한 정치적

3) 김영태, 「만파식적설화고」, 『동국대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1973.

황패강, 『한국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4) 장장식,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국제어문』 67합집, 국제어문학회, 1986.

윤철중, 「만파식적설화 연구」, 『대동문화연구』 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한기호, 「<만파식적설화> 연구」,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서유석, 「<만파식적> 설화의 건국신화적 의미 연구」, 『인문학연구』 9,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5.

박진태, 「만파식적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5)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갈등을 무마하는 장치로 이 이야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만파식적> 이야기는 삼국통일 후 정치적 안정기로 진입을 갈망하는 신문왕의 강력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견해는 모두가 공유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통일 후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사회 통합의 기제로 <만파식적>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통합의 대상이 된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김상현을 비롯한 기존 연구에서도 ‘김흠돌의 난’을 언급하면서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현장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기사만으로 이를 궁구하기에는 그 사료에 부족함이 많다. 이 글에서는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풍부하게 담고 있는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대의 사회 통합 의지를 살피고자 한다. 1989년에 발췌본이 소개되고, 1995년 필사본 전문이 공개된 『화랑세기』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도 위작 논쟁⁶⁾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혼인관계나 인물 갈등 등의 치밀함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여러 기사들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만파식적이 언급되고 있는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 「원성대왕」조, 「백률사」조를 모두 고찰하여 그 통합의 대상이 된 사건들을 고증하고자 하며, 원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놓치고 있는 만파식적의 모양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파식적> 이야기가 가지는 통합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6) 노태돈교수는 『화랑세기』 발췌본과 필사본이 이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여기에 수록된 향가, 문란한 성 관계와 마복자(摩腹子) 문제 등을 들어서 위작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종욱교수는 진본으로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신라인의 신라이야기』, 조협공동체 소나무, 1999 참조).

II. 관련 자료의 재검토

1. 관련 이야기 다시읽기

만파식적에 대한 언급을 현전하는 문헌에서 처음 찾을 수 있는 곳은 『삼국사기』 잡지(雜誌) 악조(樂條)의 기사이다. 삼죽(三竹)인 관악기를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전래된 관악기와는 따로 향삼죽(鄉三竹)을 기술하는 자리에서 언급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신문왕 때 동해 중에서 홀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 머리와 같고 그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笛을 만들어 이름을 만파식이라고 하였다 한다. 이런 말이 있으나 꾀이하여 믿을 수 없다.⁷⁾

김부식은 이러한 내용을 고기(古記)에서 가져왔는데, 그 고기가 『구삼국사』인지 아니면 다른 문헌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참고한 문헌 속에 <만파식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사건 기사 형식으로 요약하여 수록하면서, 그 내용이 꾀이하여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단지 관악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에 얽힌 기사로 제시할 뿐 그 이름에 얽힌 신이한 일이나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언급은 소거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이어 <만파식적> 이야기의 전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삼국유사』 기이편 소재 「만파식적」조이다.

7) 古記云 神文王時 東海中忽有一小山 形如龜頭 其上有一竿竹 晝分爲二 夜合爲一 王使斫之作笛 名萬波息 雖有此說 怪不可信(『삼국사기』 권 제32, 잡지 악조)

이듬해 임오(壬午) 5월 초하루에 (어떤 책에는 천수(天授) 원년(690년)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해관(海官) 파진찬(波珍澣) 박숙청(朴夙淸)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日官) 김춘질(金春質)(또는 춘일(春日))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①“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三韓)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김공유신(金公庠)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그달 7일에 이견대로 행차하여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사자를 보내 살펴보도록 했더니, 산의 형세는 거북의 머리 같고, 그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일설에는 산도 역시 밤낮으로 합치고 갈라짐이 대나무와 같았다고 한다.) 사자가 와서 그것을 아뢰니, 왕은 감은사로 가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오시(午時)에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쳐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 그 달 16일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도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가져다 바쳤다. 왕이 영접하여 함께 앉아서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용이 대답하기를, ②“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천신(天神)이 되셨는데, 두 성인이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보내 저를 시켜 이를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17일에 기림사(祇林寺) 서쪽 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 이공(理恭) (즉 효소대왕(孝昭大王))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말을 달려와서 하례하고 천천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

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셨다. 태자가 아뢰기를,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면 아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의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을 용연(龍淵)으로 불렀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③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효소왕 대에 이르러 천수(天授) 4년 계사(癸巳)에 실례랑(失禮郎)이 살아 돌아온 기이한 일로 해서 다시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 전기에 보인다.⁸⁾

일연은 이 이야기를 다른 문헌에서 보았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 실상이 구체적이고, 위에 든 『삼국사기』의 표현들과 부합하는 구문⁹⁾으로

8) 明年壬午五月朔 (一本云 天授元年誤矣) 海官波琿喚 朴夙清 奏曰 東海中有小山浮來向感恩寺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 金春質 (一作 春日) 占之曰 聖考今爲海龍鎮護 三韓抑 又金公庾信 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行幸海過 必得無價大寶 王喜以其月七日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夜合一 (一云山亦晝夜開合如竹) 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竹合爲一 天地振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 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問曰 此山與竹 或判或合如何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王驚喜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 時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膳 太子理恭 (卽孝昭大王) 守闕聞此事 走馬來賀徐察 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沉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 沉溪卽成龍上天 其地成淵因號龍淵 駕還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至孝昭大王代 天授四年癸巳 因失禮郎 生還之異 更封號曰 萬萬波波息笛 詳見彼傳『삼국유사』 기이, 「만파식적」, 國事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9) 대를 표현한 간죽(竿竹)이나 대를 벤다는 술어(斫)를 작(斫)으로 쓴 것 등으로 보아 두 이야기는 연관성이 크다. 시대적으로 『삼국사기』가 앞서니 일연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김부식의 글이 축약된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연의 『삼국유사』가 원형의 이야기라고 판단한다.

보아 이 이야기가 원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곧, 고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김부식이 축약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은 밑줄 친 부분들이다. ①과 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문무왕과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성인으로서 죽어서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심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에서 호국사상을 이 이야기의 주제로 부각¹⁰⁾시켰다. 문무왕이 호국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은 유골을 바다에 안치하라는 유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김유신의 혼령이 합세하여 이성동덕(二聖同德), 이성동심(二聖同心)으로 수성(守城)의 보물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원문에 호국(護國)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성(守城)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삼한 통합을 이미 문무왕대에 이루었고, 문무왕은 임종할 때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겠다고 표방¹¹⁾하였는데, 여기서는 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국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문무왕은 왜적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쓴 수성(守城)의 의미는 통일된 신라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국내의 반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나운 동해용이 되어 위협을 가하겠지만 국내의 반란으로부터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통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②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으로, 조화를 강조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통일된 신라에서 신문왕이 할 일은 통일을 이룬 선왕의 위업을 널리 선양하여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상신인 김유신을 끌어들이는 형국이다. 강력한 왕권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있었고 이를 해

10) 김영태, 「만파식적설화고」, 『동국대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1973.

황패강, 『한국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11) 『삼국유사』 기이, 「문호왕 범민」조 참조.

결하는 방안으로 내적인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정사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선왕의 치적에 죽은 상신의 도움까지 필요하게 만든 사건이란 무엇인가? 역사를 살펴보면 신문왕 즉위가 신사년(681) 7월인데, 8월에 김흠돌의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만파식적의 일이 있다. 결국 김흠돌의 난을 제압하고 사회의 통합을 위한 방편으로 <만파식적>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본다면 만파식적이라는 악기는 나라 안의 통합을 위한 상징적 장치임도 명확해진다.

이러한 국내 통합의 상징적 장치임을 보이는 또 다른 기사는 『삼국유사』 기이편 「원성대왕」조에서 찾을 수 있다.

④왕의 아버지 대각간 효양(大角干 孝讓)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왕에게 전했다. 왕은 이것을 얻었으므로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다. 정원(貞元) 2년 병인(丙寅) 10월 11일에 일본 왕 문경(文慶)(일본제기(日本帝紀)를 살펴보면, 제55대 왕 문덕(文德)인 듯한데 이것이 옳다. 그 후에는 문경이 없다. 다른 본에서는 이 왕의 태자라고도 한다.)이 ⑤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러했으나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렸다. 금 50냥을 사신에게 주어 보내 만파식적을 청했다. 왕이 사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들건대 상대(上代)의 진평왕(眞平王)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듬해 7월 7일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금 1천 냥으로 그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과인은 그 신물을 보기만 하고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니 왕은 지난번과 같은 대답으로 이를 사양하고 은 3천 냥을 그 사신에게 주고, 가져온 금도 돌려주어 받지 않았다. 8월에 사신이 돌아 가자 그 피리를 내황전(內黃殿)에 보관했다.¹²⁾

12) 王之考大角干孝讓 傳祖宗萬波息笛 乃傳於王 王得之 故厚荷天恩 其德遠輝 貞元二年丙寅十月十一日 日本王文慶(按日本帝紀 第五十五年 文德王 疑是也 餘無文慶 或本云 是王太子) 舉兵欲伐新羅 聞新羅有萬波息笛 退兵以金五十兩 遣使請其笛 王謂使曰 朕聞上世 眞平王代有之耳 今不知所在 明年七月七日 更遣使以金一千兩 請之曰 寡人願得見神物而還之矣 王亦辭以前對以銀三千兩 賜其使還金而不受 八月使還藏其笛於內黃殿 (『삼국유사』 기이, 「원성대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원성왕 김경신의 등극 과정은 김주원과의 대결담으로 흥미진진하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아버지가 조상대부터 전해온 만파식적을 전해주어 그 덕이 널리 빛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궁중의 천존고(天尊庫)에 보관되었다던 만파식적을 원성왕의 아버지 효양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원성왕과 김주원의 대결 구도 속에서 온전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을 보듬어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를 그 아버지 효양이 조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다시 만파식적이 사회 통합의 장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물론 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파식적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호국의 장치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만파식적이 보인 신이한 행적은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에도 나타난다. 화랑 부례랑을 구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천수(天授) 3년 임진(壬辰) 9월 7일에 ⑥효소왕(孝昭王)은 대현(大玄)살찬(薩喚)의 아들 부례랑을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낭도(珠履)가 천 명이었는데 안상(安常)과 더욱 친하였다.

천수(天授) 4년, (즉 장수(長壽) 2년) 계사(癸巳) 늦은 봄에 낭도들을 거느리고 금란(金蘭)으로 출유하여 북명(北溟) 지경에 이르러 적적(狄賊)들에게 붙잡혀 갔다. 문객들은 모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돌아왔으나 안상만이 홀로 그것을 추적하였는데 이는 3월 11일의 일이었다.(중략)

5월 15일 부례랑의 두 분 부모님이 백율사의 대비상 앞에 나아가서 여러 날 저녁 천제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갑자기 향탁(香卓) 위에 거문고와 피리 두 보물이 놓여져 있고 부례랑과 안상 두 사람도 불상 뒤에 도착해 있었다.(중략)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 해변가에 이르렀는데, 또한 안상도 만났습니다. ⑦이에 피리를 두 쪽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면서 각기 한쪽씩 타게 하고 자신은 그 거문고를 타고 등등 떠서 돌아왔는데 잠깐 사이에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일을 급히 알렸더니, 왕은 크게 놀라며 사람을 보내어 낭을 맞아 들이고, 거문고와 피리도 대궐 안으로 옮기게 하였다. 무게 50량으로 된 금과 은으로 만든 다섯 개의 그릇 두 벌과 마납가사(摩袞袈裟) 다섯 필과, 대초(大綯)

3천 필, 밭 1만 경(頃)을 절에 시주하여 대비의 은덕에 보답하였다. 국내에 크게 사면을 내리고 사람들에게는 관작 3급을 올려 주고, 백성들에게는 3년간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절의 주지를 봉성사에 옮겨 살게 하였다. ⑧부레왕을 봉하여 대각간(大角干)(신라 재상)으로 삼고, 아버지 대현(大玄)아찬(阿噴)을 태대각간(太角干)으로 삼았다. 어머니 용보부인(龍寶夫人)은 사랑부(沙梁部) 경정궁주(鏡井宮主)로 삼고 안상법사를 대통(大統)으로 삼았으며, 창고 관리 다섯 명은 모두 석방하여 관작을 각기 5급씩 올려주었다.

6월 12일에 혜성(彗星)이 동방에 나타나고, 17일에는 또 서방에 나타나므로,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거문고와 피리의 상서에 대하여 관작을 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적(神筭)을 책호(冊號)하여 만만파파식(萬萬波波息)이라고 하니 혜성이 이내 물러갔다.¹³⁾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백률사의 관음보살상의 영험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파파파식이 처음 만들어진 신문왕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대 정치사회적 상황은 신문

13) 天授三年壬辰九月七日 孝昭王 奉大玄薩噴之子 夫禮郎 爲國仙 珠履千徒 親安常尤甚 天授四年(長壽二年)癸巳暮春之月 領徒遊金蘭 到北溟之境 被狄賊所掠而去 門客皆失措而還 獨安常追述之 是三月十一日也 大王聞之 驚駭不勝曰 先君得神笛傳于朕躬 今與玄琴藏在內庫 因何國仙忽爲賊俘 爲之奈何(琴笛事具載別傳) 時有瑞雲覆天尊庫 王又震懼使檢之 庫內失琴笛二寶 乃曰 朕何不予昨失國仙 又亡琴笛 乃囚司庫吏 金貞高 等五人 四月募於國曰 得琴笛者賞之一歲租 五月十五日 郎二親 就栢栗寺大悲像前 禮祈累夕 忽香卓上 得琴笛二寶 而郎常二人來到於像後 二親顯喜 問其所由來 郎曰 予自被掠爲波國 大都仇羅家之牧子 放牧於大烏羅尼野(一卒作 都仇 家奴牧於大磨之野) 忽有一僧容儀端正 手携琴笛來 慰曰 憶桑梓乎 予不覺跪于前曰 眷戀君親何論其極 僧曰 然則宜從我來 遂率至海端 又與安常會 乃批笛爲兩分與二人各乘一隻 自乘其琴泛歸來 俄然至此矣 於是具事馳聞王大驚 使迎郎 隨琴笛入內 施鑄金銀五器二副各重五十兩 摩袈裟袈五領 大絹三千疋 田一萬頃納於寺 用荅慈惠焉 大赦國內賜人爵三級 復民租三年 主寺僧移住奉聖 封郎爲大角干(羅之冢宰爵名) 父大玄阿噴爲大大角干 母龍寶夫人 爲沙梁部 鏡井宮主 常師爲大統 司庫五人皆免賜爵各五級 六月十二日 有慧星孛于東方 十七日又孛于西方 日官奏曰 不封爵於琴笛之瑞 於是冊號 神笛爲萬萬波波息 慧乃滅 後多靈異 文煩不載 世謂 安常爲俊永郎徒 不之審也 永郎之徒 唯眞才繁完 等知名 皆亦不測人也(詳見別傳)(『삼국유사』답상, 「백률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왕대의 고민과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부레랑이라는 화랑에 대한 고증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레랑이라는 인명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삼국유사』 의해편 「자장정룡」조에 단순하게 이름만 언급된 것이 전부이다. 부레랑이 이 납치사건으로 인해 신라 최고 관직인 대각간이 되었고, 그 아버지 대현은 태대각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실상을 찾을 길이 없다. 아마도 다른 인물에 대한 별호로 부레랑이나 대현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아닐지?

이 이야기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엿보이는 것은 ⑥에서와 같이 대현살찬의 아들 부레랑을 국선으로 삼았다는데 있다. 『화랑세기』를 살펴보면 신라의 화랑제도는 신문왕 때 김흠돌의 난 이후 폐지된 것으로 나온다. 그 후 다시 부활하면서 국선(國仙) 체제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랑의 수장이라고 할 국선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 의문이 든다. 그 아버지 대현은 살찬(薩漣) 벼슬을 지낸 것으로 나오는데, 살찬은 신라 관등 17등급에서 제8등급에 해당하는 사찬(沙漣)의 이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분의 아들이 국선이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납치사건 해결 후 비상설직인 신라 최고의 직책 태대각간의 직위로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신라에서 태대각간의 직책을 얻은 이는 김유신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순연히 백률사의 대비상의 신이함을 드러내기 위한 허구일 뿐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만파식적은 신라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한 공적을 가진 존재로 인격화되어 있다. 납치 사건 해결 후 그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논공행상을 행하는데, 이 피리에 대해서만 누락되어, 살벌의 출현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만만파파식적’으로 책호하였다. 결국 이 역시 납치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불안을 일소한 사회 통합의 사건으로 수많은 관련 인사와 피리에게까지 최고 등급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만파식적> 이야기의 사건 구조는 모두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상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만파식적 피리의 모양에 대한 재검토

만파식적은 문무왕과 김유신이라는 두 성인이 신라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두 성인의 마음이 대나무로 상징화되었고, 두 대나무가 합쳐지는 절차가 두 성인의 합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실체는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음률을 펼치는 피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 피리의 형상은 통합을 상징하는 모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파식적의 모양이 어떻게 사회 통합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상징화되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파식적의 모양에 대한 단서는 위의 이야기 가운데 ②와 ⑦에서 찾을 수 있다. ②에서와 같이 한 손바닥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피리는 통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공을 여러 개 뚫고 윗부분에 입을 대고 불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렇다면 대나무를 합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각각의 대나무 통을 반으로 쪼개서 그걸 다시 붙여서 피리와 같은 관악기(管樂器)를 만드는 법이 있는지? 관련 서적을 찾아도 그와 같은 제작법은 찾을 수 없다. 현대의 국악계에서는 이 만파식적을 대금(大筚)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만파식적> 설화에서 언급한 대나무 둘이 합쳐지는 형상을 곧 쌍골죽¹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대 둘이 합쳐진 것이

14) 대나무는 죽순에서 올라올 때 한 마디에 한 쪽씩 순차로 어긋나게 가지를 뻗게 되어 있다. 그 가지가 죽순 옆에 싸여있을 무른 시기에 한 쪽에 골이 파이게 된다. 그러니 정상적인 대나무는 한 마디에 한 쪽에만 골이 파여 있어야 하고, 이것이 다음 마디에서는 어긋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간혹 한 마디의 양쪽 모두에 가지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골도 양쪽에 모두 파이게 된다. 이를 쌍골죽이라 하는데, 대금과 같은 악기를 만들 때 손가락을 놓기 편하여 귀한 재료로 삼는다.

쌍골죽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대를 인위적으로 쪼개서 이를 아교 등으로 붙이면 또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기 제작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찾을 수 없다

아울러 만파식적의 모양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단초는 ⑦에서이다. 납치당한 부레랑을 구출하러 온 스님이 부레랑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와서 절친한 낭도 안상을 만나게 해 주고는 그 곳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쪽배를 마련해 준다. 그런데 그 배가 다름 아닌 만파식적이었다. ‘이에 피리를 두 쪽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면서 각기 한쪽씩 타게’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두 대나무가 붙어 있는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파식적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악기의 모양일 수 있다. 현전하는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악기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만파식적을 처음 언급한 『삼국사기』의 잡지의 악조에 삼죽(三竹)을 설명하는 자리에 쌍적(雙笛)이 언급¹⁵⁾되어 있다. 이 쌍적에 대한 부가 설명은 다시 찾을 수 없다. 이에 여러 사전류를 찾다가 만파식적의 모양으로 짐작되는 관악기를 찾게 되었다.



그림1 관(管)



그림2 관(管)

그림1¹⁶⁾과 그림2¹⁷⁾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관(管)이라는 악기로, 두 개의 통대를 붙인 형상이다. 사전의 설명으로는 ‘지(簾)와 같은 여섯 개의 구멍이 있어 12월의 음으로 사물을 열고 땅을 지탱한다’¹⁸⁾고 하였다.

15) 마음이 이르기를, 근대의 쌍적은 강(서용종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馬融云 近代雙笛從羌起(『삼국사기』 권 제32, 잡지 악조).

16) 『大漢和辭典』 卷 8, [관(管)]항 참조.

17) 池田四郎次郎, 『故事熟語大辭典』, 東京寶文館, 대정 2년(1913), 766쪽.

이를 단서로 본다면 관은 두 대나무를 묶었다는데 일단 만파식적 모양 설명과 상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설명하는 설문(說文)의 구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대나무에 구멍이 각각 6개씩이고, 이는 1년 열 두 달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 소리가 만물을 열고 땅을 유지한다는 해설이다. 이것은 ‘대나무는 합친 후에 소리가 난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며, 문무왕과 김유신의 두 성인이 합심으로 기원하는 바, 수성(守城)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기가 현재의 국악기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악학궤범』에는 관에 대한 그림과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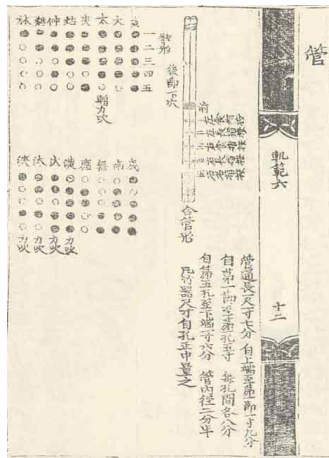


그림3 『악학궤범』 관(管)



그림4쌍피리

관(管)은 조선시대에 궁중악에 쓰인 관악기로, 『악학궤범』에 의하면 길이 1척 1촌 7푼의 오죽관(烏竹管) 두 개를 누런 생사(生絲)로 묶어 만든 ‘합관형(合管形)’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마치 현대의 리코더 두 개를

18) 管如簾六孔 十二月之音 物開地牙 故謂之管 從竹官聲(說文)(『大漢和辭典』 卷 8, [관(管)])

붙인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이를 국립국악원에 보관되어 있는 쌍피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증을 종합해 보면 만파식적은 쌍피리의 형상으로, 각 하나의 피리에 6개의 구멍을 뚫어 1년 열두 달을 상징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이것이 천하를 조화롭게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다. 곧, 세상을 통합하는 상징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Ⅲ. <만파식적>설화에 담긴 통합의 의미

1. 무열왕계와 가야계의 통합

만파식적이 나라의 근심을 잠재우는 기능을 수행했음은 설화 문면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근심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파식적>설화가 만들어진 시기는 신문왕 2년(682년)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문왕은 문무왕의 장자로, 이름은 정명(政明), 어머니는 자의(慈儀)왕후이다. 처음 왕비는 소판(蘇判) 김흠돌(金欽突)의 딸 김씨였다. 태자로 있을 때 비(妃)로 맞았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 김흠돌의 반란에 죄를 입어 내쫓긴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왕은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후에 효소왕이 된 이공(理恭) 등의 아들을 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문왕은 선왕이 7월에 사망한 후 아직 상기도 끝나기 전 8월에 김흠돌의 난을 당한다. 장인인 김흠돌의 난을 당하여 힘들어 한 사실은 『삼국사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흠돌은 왕의 장인으로서 왜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김흠돌, 흥원(興元), 진공(眞功)이 반란의 주축이 되었고, 이를 평정하고 모두 주살한 후, 이 반란

을 알고 있었던 주변 인물인 김군관(金軍官) 등도 죽여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음을 알 뿐이다.

실제로 신라시대 왕이 아닌 인물들에 대한 내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기록을 인용하고자 한다. 위서 논쟁이 일 단락되지 않았으므로 논증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담감이 있지만, 화랑들의 계보와 그 혼인관계 등은 매우 치밀하여 오히려 진본의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을 정도이므로 이를 신빙하고자 한다. 『화랑세기』에는 1세 풍월주 위화랑(魏花郎)부터 32세 풍월주 신공(信功)의 행적과 가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흠돌은 27세 풍월주였다. 김흠돌의 반란에 대한 기사는 32세 신공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흠돌은 아침으로 문명태후를 섬겼다. 이에 그의 딸이 유신공의 외손이므로 태자에게 바쳤다. 태자와 모후는 흠돌의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昭明太子는 무열제의 명으로 欽運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약속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흠운의 딸은 스스로 昭明祭主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慈儀后가 허락하였다. 이것이 昭明宮이다. 태자와 더불어 모후가 자주 소명궁으로 거동하였다. 태자가 소명궁을 좋아하여 마침내 理恭殿君을 낳았다. 后가 이에 소명궁에게 명하여 東宮으로 들어가게 하고, 善明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총애함이 흠돌의 딸보다 컸다. 흠돌의 딸이 투기하였다.¹⁹⁾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김흠돌은 김유신의 생질이면서 사위²⁰⁾이기도 하였다. 김유신의 딸 진광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문무왕의 태자인 소명태자(후의 신문왕)의 비로 들인다. 여기에는 그의 이모인 태종

19) 突媚事文明太后 乃以其女爲庾信公外孫 故納于太子 太子與母后不悅突女 先是昭明太子以武烈帝命約娶欽運女而早卒 欽運女自願爲昭明祭主 慈儀后許之 是爲昭明宮 太子與母后累幸昭明宮 太子悅之 遂生理恭殿君 后乃命昭明宮入東宮 改稱善明宮 寵右於突女 突女妬之(『화랑세기』, 「32세 信功」)

20) 흠돌은 김유신의 누이 정희와 달복 사이의 소생으로 나오니 생질이요, 김유신의 딸 진광을 부인으로 맞았으니 사위 신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화랑세기』, 「27세 흠돌」 참조)

무열왕비 문명태후(文暉)의 힘을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먼저 태종무열왕은 자신과 함께 화랑의 신분으로 백제와의 전투에 나가 장렬히 전사한 김흠운의 딸을 소명태자의 배필로 약속해 두었다고 한다. 혼인의 당사자인 소명태자와 그의 모후인 자의왕후는 흠돌의 딸에게 마음이 없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 태자는 흠운의 딸(후의 신목왕후)에게서 아들 이공(理恭)을 얻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문무왕이 죽자 태자는 신문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김흠돌은 궁지에 몰린 처지가 된 것이다. 이것이 김흠돌의 반란의 배경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삼국사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거쳐 완성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김유신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신라의 왕위 계보는 중대에 와서 진덕여왕으로 성골의 계보는 막을 내리고, 김춘추가 즉위함으로써 하대가 열린다. 이 김춘추의 등극은 폐위된 진지왕과 그 아들 용춘의 정치적 입지만으로는 불가능했을 듯하다. 이런 처지는 금관가야에서 투항한 귀화 귀족 김유신이 합세함으로써 큰 힘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유신이 누이동생 문희와 김춘추를 혼인시키기 위해 벌인 지략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주류였던 두 계파의 결속으로, 무열왕계라는 새로운 왕위 계승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무열왕계는 가야계와 혼인관계²¹⁾를 통한 결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러한 두 계파의 결속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권력을 부린 인물이 가야계의 김흠돌임도 확인할 수 있다.

김흠돌은 삼한통일의 최고 공로자인 김유신과 태종무열왕비 문명왕

21)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와 혼인을 하고, 김유신은 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지소를 부인으로 맺는다. 이같은 관계는 역사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혹자들이 『화랑세기』의 위작을 주장하면서 성적인 문란을 그 증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생질녀와 혼인하는 김유신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화랑세기』의 혼속은 충분히 가능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집단 내부에서는 오히려 타당한 욕망구조라고 판단된다.

후의 조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문무왕비가 된 자의까지도 첩으로 삼고자 한 행적이 『화랑세기』에 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문왕의 즉위는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음에 반란을 획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신문왕의 대응 또한 아주 냉철하게 이루어진다. 반란의 수괴들을 모두 처단하고, 그 딸인 왕비도 폐위하였으며, 삼국통일 후 권력의 비호를 받은 화랑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결국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왕권에 도전하던 가야계를 척결하고, 인재 선발의 장치였던 화랑제도의 폐지를 통해 강력한 무열왕계의 왕권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무열왕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종묘의 오묘제²²⁾를 확립한다. 시조왕으로 김씨 가운데 최초로 왕이 된 미추왕을 모시고, 그의 고조인 진지대왕, 증조인 문흥대왕(용춘), 조부인 태종대왕, 선친인 문무대왕을 모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인 자의태후의 명으로 화랑을 폐지하고 낭도들을 모두 병부에 귀속시키고 직책을 주었다고 『화랑세기』에는 전한다.²³⁾ 또한 화랑제를 통해 이루어졌던 인재 선발을 국학(國學)을 세워²⁴⁾ 대신하게 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김흠돌의 반란을 기화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순조롭게 수용되기란 쉽지 않았을 듯하다. 『화랑세기』에는 자의태후에 의해 폐지된 화랑제도가 부활하는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자의태후가 화랑을 폐지하라고 명하고, 오기공으로 하여금 낭도들의 명단을

22) 중국의 법제에서 제후는 시조를 위시하여 4대조를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 것이다.

23) 『화랑세기』, 「32세 신공」 참조.

24) 신문왕 2년 6월에 처음 국학을 세웠다. 신라는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이 화랑을 뽑아 쓰는 법뿐이었고 학교의 제도가 없었는데, 진덕 때에 비로소 박사(博士), 조교(助教)의 관직을 두었으나 국학의 이름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국학을 두었다.(『동사강목』 제4하, 신문왕 2년)

작성하여, 모두 병부에 속하게 하고 職을 주었다. 그러나 지방의 낭정은 옛날 그대로 스스로 남아 있었다. 悉直이 가장 성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 풍속이 다시 서울에 점점 퍼졌다. 증신들이 모두 오래 된 풍속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태후가 이에 득도하여 국선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화랑의 풍속은 그리하여 크게 변하였다.²⁵⁾

이 시기 왕권 강화의 결단은 신문왕과 함께 자의태후가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오랜 유풍을 가진 화랑제도의 폐기가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은 풍월주 체제에서 국선 체제로 바꾸는 선에서 다시 부활을 허락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야계의 반발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삼국사기』에는 신문왕 7년에 국가에 또 다른 변란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해 2월에 원자(태자)가 출생하였는데, 일기가 음침하고 천둥번개가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4월에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인 음성서장(音聲署長)을 경(卿)이라 고쳤다. 그리고 종묘에 큰 제사를 드려 국가 안정을 기원하였으며, 5월에는 문무 관원에게 토지를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⁶⁾ 이 일련의 사건들이 왕권 강화책이 나온 7년 후에 이루어졌고, 사건의 기화가 태자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연대적으로 이 해에 태자가 탄생하였다는 것은 『삼국유사』²⁷⁾나 『화랑세기』²⁸⁾와는 상충되며, 신문왕의 생애를 추정해 보아도 맞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태자

25) 慈儀太后命罷花郎 使吳起公籍郎徒盡屬兵部 授之以職 雖然地方郎政依舊自存 悉直最盛 未幾其風又漸京中 重臣皆以爲古風不可卒變 太后乃許 以得道爲國仙 花郎之風於是大變(『화랑세기』, 「32세 신공」)

26)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조 참조.

27) 만파식적의 기사가 신문왕 2년의 일인데 여기에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받은 흑대를 보고 태자 이공이 보인 이적이 용연과 관련하여 장황하다.

28) 이미 신문왕의 태자 시절에 김흠운의 딸에게서 태자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 탄생이 재앙으로 인식된다는 데 있다. 그 후 그에 대한 위무책으로 보이는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두 달 후 음악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직위를 경(卿)으로 올렸다는 것과 종묘에 제사하였다는 것, 세 달 후 문무관에게 토지를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만파식적>설화와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연대는 착오일 수 있고, 태자와 관련하여 하늘의 기운이 몹시 불안하였다고 하니, 이는 국내 정세가 태자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수장을 경이라는 직위로 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만파식적의 피리 소리(음률)로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설화의 문면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무열왕계 중심의 왕권 강화에만 전념하다 보니 신문왕이 태자 시절 혼외관계에서 낳은 이공(효소왕)의 신분기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은 아닐지? 그 세력은 왕비에서 밀려난 김흠돌의 딸을 중심으로 한 가야계의 잔존 세력일 수 있다. 이 시기 김유신의 자손들은 중요 관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무열왕계의 강력한 주체인 문무왕과 가야계의 대표인 김유신이 사후에 다시 힘을 합쳐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음률의 조화로 세상을 통합하라는 상징으로 만파식적을 내려준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내물왕계와 무열왕계의 통합

신라는 후대에 와서 왕위 계승의 내분을 지속적으로 겪는다. 그 시작은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을 폐하고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된 김양상이다. 김양상은 내물왕의 10세손으로, 혜공왕 말년에 상대등으로 있던 중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여 죽이고 왕도 시해하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김양상은 자신의 즉위에 명분이 없었던지 자신의 아버지 효방을 개성왕으로 추존은 하였지만 자신의

조상으로 종묘를 개정하지는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아들을 두지 못하여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이를 이어 김경신이 등극하였는데 이가 원성왕이다. 원성왕은 즉위 과정에서 김주원과 치열한 암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김경신의 꿈 해몽이야기로 설화화하여 전하지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사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덕왕의 사후에 후계를 세우는 문제는 선덕왕의 어머니인 정의태후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에 태후는 무열왕의 5세손인 김주원을 지목한다. 정의태후는 성덕왕의 딸로서, 무열왕계의 부활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침 큰 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쳤고, 궁으로부터 북으로 20리 거리에 거주하던 김주원은 입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경신이 여러 신하를 위협하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주원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명주로 피신하여 다시는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원성왕은 내물왕의 12세손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4대를 추존하고 할아버지 흥평대왕과 아버지 명덕대왕을 오묘에 올린다. 이는 내물왕의 후손이면서 오묘를 개정하지 못한 선덕왕과는 대조적인 강력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무열왕계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으므로 시조인 미추왕과 태종, 문무는 그대로 두고 내물왕계인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부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경한 행보는 반대 세력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다시 <만파식적>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다.

『삼국유사』 기이 「원성대왕」조에는 왕의 ‘아버지 대각간 효양(大角干孝讓)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왕에게 전했다. 왕은 이것을 얻었으므로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만파식적의 효용은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덕을 널리 빛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란과 유사하게 왕위에 오른 원성왕의 흔들리는 입지를 만파식적을 통해 굳건하게 다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무열왕계인 김주원의 뒤흔들었던 왕위를 가로챈 내물왕계의 수장으로서 사회 통합의 상징적 장치를 얻게 되었음을 보이

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지점은 원성왕은 즉위할 때 이미 그 아버지 효양은 죽고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즉위 한 달 후 4대 추존에 포함되었고 종묘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아버지가 사후에 왕이 된 아들에게 조상 대대로 전해온 만파식적을 전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즉위하자마자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 강화에 몰두하는 아들에게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죽은 조상의 계시와 같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원성왕은 직접 아버지에게 만파식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널리 유포하여 자신은 내물왕계로서 중앙 정계에서 몰려난 무열왕계까지도 보듬겠다는 강력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통합의 의지를 현실화시킨 것이 즉위 이듬해에 서울 지역에 기근이 들자 널리 곡식을 풀어 진휼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신의 최대 정적이고 무열왕계의 수장인 김주원을 명주군왕(溟州郡王)에 봉함²⁹⁾으로써 사회통합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결국 만파식적은 처음 이야기가 만들어진 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강력한 사회 통합의 메시지로 그 효용성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분열을 통합하는 장치로 활용된 만파식적은 원성왕대에 와서는 왜적의 침입도 막아주는 호국의 장치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왕이 군사를 일으켰다가 만파식적의 존재를 알고 돌아가고, 그후 여러 차례 금과 은으로 한 번 보기를 청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원성왕은 일본 사신을 만난 자리에서 만파식적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³⁰⁾고 둘러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평왕대에 그

29) 김주원은 처지가 꺾박되고 일이 의심을 받게 되므로 오래 명주에 거주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명주, 익령(翼嶺)-지금의 양양, 삼척(三陟), 울진(蔚珍), 근을어(斤乙於)-지금의 평해 등의 군현을 할양해 주어 그의 식읍으로 삼으니, 그 자손들이 세습하였다.(『동사강목』 제5상, 원성왕 2년 참조)

30) 내 든건대 상대(上代)의 진평왕(眞平王)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삼국유사』 기이, 『원성대왕』)

것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옥대(玉帶)와 착오를 일으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파식적은 처음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국내의 변란을 무마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장치로 상징화 되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원성왕 때에는 국가의 안위를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호국의 용도로 그 의미가 확장, 혼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IV. 남은 문제-맺음말에 대신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된 <만파식적> 설화 두 편을 사회 통합의 상징물로 해석해 보았다. 이제 남은 「백률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여기에는 그 근거로 삼을 만한 사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쉽사리 구명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백하면서 남은 문제를 제시해 본다.

신문왕과 효소왕 시절에 무열왕계 독주의 상황에서 왕성했던 화랑제도의 폐지는 국가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 만파식적이 가진 사회 통합 메시지가 다시 한 번 요청된 것이 『삼국유사』 탐상편의 「백률사」조 이야기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효소왕 즉위 2년(693년)에 부레랑을 국선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그는 따르는 낭도가 천명에 이를 정도로 지지 기반이 대단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 화랑이 말갈족에게 납치를 당하였고, 효소왕은 몹시 놀라서 국가의 변란으로 이를 간주한다. 그런데 국선 부레랑과 안상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변란을 막을 만파식적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이에 효소왕은 크게 동요하고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그리고 백률사 관음보살의 이적으로 만파식적과 부레랑 일행은 돌아온다. 효소왕은 이에 대한 보상을 행하는데, 그 규모는 상식을 넘어선다. 백률사 관음보살에 대해서 많은 재물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보물을 찾아오고 인재를 구출했으므로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동해를 유람하다가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부레랑과 안상에 대한 보상은 의외이다.

우선 국선에 지나지 않던 부례랑을 최고의 관직인 대각간(大角干)에 봉하고, 아들의 무사 귀환을 부처님에게 빈 두 부모를 태대각간(太大角干)과 경정궁주(鏡井宮主)로 삼는다. 그리고 안상 역시 대통(大統)으로 삼는다. 이러한 보상은 삼한통일을 이룬 김유신의 공적에 대한 보상과 비견되는 것으로, 부례랑의 납치사건은 국가의 최고 위기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강릉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임영지』에 보면 안상이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서 붙였다고 언급³¹⁾되어 있다. 그렇다면 화랑의 무리들이 화랑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발한 것을 부례랑과 안상이 진압하거나 평정한 것은 아닐지? 그리고 그 공적을 국가의 보물인 만파식적에게 돌린 것은 아닐지?

이 이야기는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고, 고려말까지 백률사의 외벽에 그림과 함께 그 내력이 기록되어 있었다³²⁾고 한다. 일연은 아마도 그 내용을 보고 『삼국유사』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그런데 과연 부례랑은 누구인가? 신라의 역사에서 대각간이나 태대각간의 직위를 부여받은 인물은 오직 김유신에 한한다. 사회통합의 성인으로 설정된 김유신을 달리 표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접수일 : 2010.12.09 / 심사일 : 2011.01.10 / 심사완료일 : 2011.01.15

31) 탑산(塔山)의 기록이다. 신라 영랑도(永郎徒)가 붙던 만파식적(萬波息筩) 하나와 비파 한 개를 부(府)의 관아에 보관하여 후세에 전해지며 보배로 여겼다. (『임영지』)

32) 백률사 관음보살과 만파식적 이야기가 백률사에 전한 근거는 고려 중엽의 시인 박효수(朴孝修)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법당 안에는 백의관음 있으니, 묘한 조화가 비할 데 없다네. 거문고와 옥피리로 바다를 건넜다는 지난 일의 기록이 벽 뒤에 가득히 쓰여 있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경주부 참조)

<참고 문헌>

『대한화사전』

『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영지』

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신라이인의 신라이야기』, 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김영태, 「만파식적설화고」, 『동국대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1973.

김종균,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박진태, 「만파식적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 125, 한국 어교육학회, 2008.

서유석, 「<만파식적> 설화의 건국신화적 의미 연구」, 『인문학연구』 9,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5.

윤철중, 「만파식적설화 연구」, 『대동문화연구』 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장장식,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국제어문』 67합집, 국제어문학회, 1986.

池田四郎次郎, 『故事熟語大辭典』, 東京寶文館, 대정 2년(1913)

한기호, 「<만파식적설화> 연구」, 『연민학지』 9, 연민학회, 2001.

황폐강, 『한국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Abstract

Searching meaning of unification from <Manpasikjuk>'s rereading / Kim Jong K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the society unification through <Msanpasikjuk>'s rereading.

This story has been entertained because the junior scholars denied the reality but calmed worries. In the context, the era of this story when the story manufactured first had patriotism and society reunification. But <Samkuksaggi> explains that equipment for weakening the 'KimHeumDol's rebellion, and reinforcing the Muyeul King's family authority in the dynasty of King Sinmun.

And while the stories which refer <Manpasikjuk> were reread, comparing articles of <Samkuksaggi>, and searched the reality of the unification through <Hwarangseggi> which was excluded from the objectives of demonstration.

In the conclusion, <Manpasikjuk> should be studied in aspect of society unification rather than defense from outer enemy. And the time of King Sinmun and Hyoso, the purpose of unification of King Muyeul and Gaya's family, the time of King Wonsung for King Naemul and Muyeul's family's unification.

And musical instrument, pipe was equipped for the purpose of harmony and unification, Manpasikjuk may possibly be two bamboo pipes attached which stand for two factions. Currently Manpasikjuk is being regarded as Korean recorder, Daeguem, it is fault. It must be the shape of twin bamboo pipes which are currently not be seen.

Key words: Manpasikjuk, rereading, equipment of society reunification, twin pipes, King Muyeul's family, Gaya's family, King Naemul's family.